



# 한 땀 한 땀...삶의 이야기 조각보에



**리빙 & 아트**  
규방공예-조각보

자투리 천 조각 이어 만든 보자기  
식탁보·창가리개 등 장식용품 각광  
바느질 기법 따라 문양·용도 자유자재



옷감에 색을 넣어 염색하고, 염색한 천을 조각조각 원하는 디자인으로 엮어 만든 조각보는 대표적인 규방공예 중 하나다. 규방(閨房)은 집안에서 부녀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처했던 방을 의미한다. 여인네들은 이 규방 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의류나 주머니, 보자기, 생활소품 등을 손수 만들었으며 이를 규방공예라고 한다.

조각보는 규방공예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는데, 조각전을 활용해 한 땀 한 땀 기하학적이고 창의적인 패턴의 디자인으로 탄생한 조각보는 예술작품으로 보기에 충분한 정도로 멋스럽다.

지난해말 대한명인회에서 '조각보 명인'으로 추대받은 이 남희(45)씨는 바느질을 이용해 규방공예 작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동구 지산동에 있는 그의 작업실 '손길 공방'에는 이씨가 만든 규방공예 작품들이 진열돼 있다.

그녀가 가장 자신있는 분야는 조각보다. 조각보는 자투리 천 조각을 이어 만든 보자기를 말하는데, 요즘에는 보자기 외에 식탁리너나 창가리개 등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거나 생활 장식용품 등의 용도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예전으로 치자면 용도는 모두 보자기였어요. 끈을 달아서 이불을 싼다던가 옷이나 폐를 싸는데 이용했지요. 보자기가 쓰이는 용도에 따라 모양이나 사이즈가 달랐을 뿐이에요. 지금은 실생활에 많이 스며들었어요. 벽에 걸면 액자로, 찻잔 위에 올리면 다포가 되는 거죠. 어떤 용도로 사용되든 우리것을 이용한 생활공예가 새롭게 조명받으면서 되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환영받을 일입니다."

문양은 원하는대로 만들 수 있다. 다른 색깔의 조각을 붙여 무늬를 낼 수 있고 하나의 천을 여러 가지 바느질 기법을 통해 무늬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감칠질을 하거나 흙질, 꼬집기 기법을 통해 꽃모양을 내기도 하고 입체적인 나뭇잎 문양을 내기도 한다.

자투리 천을 이어 하나의 보자기로 만드는 일은 어찌 생각하면 쉬운 작업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천 조각을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디자인하고 꿰매어 있는 작업은 상당히 공을 들여야 하는 일이다.

"조각보에는 복을 넣는다는 염원이 담겨 있어요. 복을 싸둔다는 의미에서 '복'이라고도 불렀지요. 복을 담아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한땀 한땀 정성을 들이는 작업이 조각보예요."

규방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조각보를 만드는 것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를 두고 "천을 가지고 노는"이라고 표현한다.

"천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모양이 타원형이 됐든 꽃이 됐든 기본 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걸 도안을 어떻게 짜고 바느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작품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씨는 주로 우리 유물을 연구하며 그대로 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복이나 바느질, 복식 관련 서적을 읽으며 이론을 공부하고 교수님들이 쓴 침선(바느질)에 관한 정보도 섭렵했다. '전통에 가깝게, 흐트러지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조각보를 만들고 싶어했다.

최근에는 '개인 찻잔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회용 컵을 없애고 개인 잔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이다. 개인 잔을 담을 수 있는 다자간 보자기를 만들고 이를 상품화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유목동물' 연작 러시아 간다

허진 전남대 교수, 모스크바서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전

'유목동물' 연작 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생 관계에 주목해온 전남대 허진 교수가 러시아 무대에 선다.

허 교수가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 문화원의 초청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아르바트 현대자동차 오토 스튜디오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아 한국화를 러시아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오는 6월3일까지다.

허 교수는 "바실리 칸딘스키, 마르크 샤갈 등 예술적 영감을 많이 받은 화가들이 태어난 나라에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전시에서는 초기 작품부터 근작까지의 작품 세계를 정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화합하는 순환적 자연생태관을 지키고자 하는 친환경론을 주제로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회화방식을 융합한 작업 방식이 눈에 띈다.

주요 작품들은 '유목동물+인간-문명'과 '이종융합동물+유토피아' 시리즈다.

유목동물 연작은 말 등 역동적 야생동물들의 묘사를 통해 자본문명에 젖은 기계적 삶에 익숙한 현대의 삶을 탈피해 자유로운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도해의 풍경을 묘사한 이종융합동물 연작은 윤리의식이 결여된 과학문명에 대한 경고를 던진다.

근대 남화의 대가인 남농 허진의 장수인 허 교수는 서울대 미술대학교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한국일보 청년작가 초대전 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받았다. 또 오는 30일부터 6월5일까지 열리는 DAF단양국제아트페어에서 '2015 한국구상작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서화의 아름다움

무등그래픽서화 31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전시장

올해 창립 40년을 맞은 무등그래픽서화오늘전회(회장 김지영)가 오는 31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전시장에서 18번째 정기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맹순·김명지·김용률·김지영·박근수·박순덕·서원길·임영호·정기문·정원석씨 등 회원 10명이 참여한다. 죽곡 박인혁 선생과 노의웅 전 전남대 교수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김지영 회장은 입체화로 그린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 추기도문과 십계명 등 작품을 선보이고, 서원길씨는 캘리그래피와 서예, 그림을 접목시킨 작품을 전시한다.

정기문씨는 자연과 인간, 사물을 다양하게 재해석한 '끝없는 추구' '묵련이 머무는 곳' 등 작품을 내놓았고, 김용률씨는 각종 음악제와 영화제 등을 소재로 화려하면서도 감성을 자극하는 시각이미지들을 보여준다.

1976년 창립전을 연 무등그래픽서화오늘전회는 당시 '그래픽 디자인'을 미술의 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문의 062-234-277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대전망과 서,남해안  
미래가치 분석

**서,남해안 부동산 투자**

- 전남도청2차(오룡지구)
- 해남 산이면 위락도시(솔라시도)
- 해남 화원면 대우해양조선

**투자가치 판단과 미래분석**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세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재테크 상담소** 상담전화 ☎(062) 576-7955 **※ 현지 실전전문가 무료상담**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시공후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